# ‘초조대장경’ 디지털로 나투다

## 고려대장경硏, 1월25일 日 남선사서 보고회
## 한역불전 비교·대조 통해 교정역사 ‘한눈에’

초조대장경 간행 1000년을 맞는 2011년을 앞두고,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림스님)가 일본에 전해오는 초조대장경에 대한 학술조사 및 디지털 촬영을 마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일본 하나조노대 국제선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초조대장경 디지털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영인본 출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오는 2010년 1월25일 일본 교토 남선사에서 완료보고회를 연다. 이사장 종림스님은 “하나조노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건없이 공개해준 소장자 남선사의 선의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한일 양국의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원은 지난 6년간 진행했던 대장경 이미지 촬영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한 내용을 시연하고, 1만20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서지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연구소의 이번 사업이 주목되는 이유는 기존의 한역대장경 가운데 공개되지 않은 마지막 자료인 초조대장경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초조대장경은 고려 현종 2년(1011) 발원해 선종 4년(1087)에 완성된 고려 최초의 대장경이다. 대구 부인사에 소장돼 오던 경전은 그러나 1232년 몽골 침입 때 소실됐다. 전체 6000여 권 가운데 현재 국내에 200여 권이, 남선사에 약 1800권만이 전해 내려온다. 하지만 남선사 소장 초조대장경본은 일본의 전문가들에게조차 공개되지 않은 비장(秘藏)으로, 전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소는 초조본에 대한 디지털 사진촬영을 통해 이미지 검색을 하는 것 외에, 재조대장경과 연동해 초조와 재조대장경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비교·대조해 보는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해 연구 자료로서 가치를 높였다.

초조대장경 〈어제불부(御製佛賦)〉 권제21, 고려대장경연구소 연구원들이 남선사에서 서지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

오윤희 소장은 “이번 연구소의 초조대장경 이미지 DB작업은 최초 공개 외에도 한역대장경 역사를 추정할 수 있는 마지막 연결고리가 완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한역불전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는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조대장경의 우수성까지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오 소장은 “초조와 재조를 비교해보면 오랜 세월동안 교정과 편집을 통해 재조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며 “재조의 정확성은 물론 불전 교정 역사에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초로 공개된 초조본에 대한 이미지 자료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기술과 32억이 넘는 국내자본으로 만들어진 DB이기 때문에, 연구소 측은 학자들이 조건 없이 볼 수 있도록 시점을 조정해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2010년 초조대장경 간행 1000주년에 맞춰 ‘고려 초조대장경 복원출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소는 초조본 사진을 한지에다 사진을 그대로 인쇄해 두루마리 형태의 옛 경전모습으로 재현하는 것과 동시에 영인본 발간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연구소는 2010년 1월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완료보고회에 함께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남선사 초조대장경을 친견하는 것 외에도 교토 인근의 사찰과 고베의 선창사, 나라의 동대사 등 고려대장경과 인연있는 사찰을 순례하는 시간을 갖는다. 종림스님은 “역사 속에 사라졌던 초조대장경을 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학자들은 물론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 하복동 공불련 회장 총무원장 스님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하복동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을 비롯 공무원불자회 임원단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사진〉

하 회장은 “내년엔 공불련 창립 10주년을 맞아 더욱 어깨가 무겁지만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더욱 신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격려했다.

임나정 기자 muse724@ibulgyo.com

## 직능직 종회의원 1월8일 보궐선거

### 쌍계사·화엄사 직선직은 12월말 예정

제33대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 출범으로 궐위된 직능직 중앙종회의원에 대한 보궐선거일이 내년 1월8일로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경스님)는 지난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14차 회의를 열고 제14대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보궐선거를 1월8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제41조에 따르면 중앙종회의원이 궐위 또는 유고됐을 경우 60일 이내에 선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계종 직능대표 선출위원회는 1월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직능대표 보궐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공석이 된 직능직 중앙종회의원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자승스님(행정)을 비롯해 교육원장 현응스님(선원),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스님(문화) 등 3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함께 총무부장 영담스님(13교구 쌍계사), 재무부장 상운스님(14교구 범어사), 호법부장 덕문스님(19교구 화엄사) 등 총무원 부장에 임명돼 궐위된 직선직 종회의원에 대해서도 해당 교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일정을 확정하도록 했다. 쌍계사와 화엄사의 종회의원 선거는 오는 12월28일 치러질 예정이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 포교원-동련, 내달 13일 어린이지도자연수회 개최

조계종 포교원과 사단법인 동련이 오는 12월13일부터 14일까지 경주 사조리조트에서 제48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해처럼 밝고 꽃처럼 고운 천진불을 위하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수회에는 약 200명의 어린이 지도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연수회에서는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주지 정여스님이 ‘어린이에게 부처님의 향기를’ 주제로 법문하며, 조계종 포교원 김영일 차장의 ‘어린이 포교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사공정규 동국대 경주병원 정신과 교수의 ‘어린이정신건강’, 이유정 오산 대각사 어린이회 지도교사의 ‘헬로 달마스쿨’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이어진다.

임나정 기자

## 동국대, 약학대학 유치 ‘총력’

### 고양 지역인사들도 총결집, 17일 지원단 발족

동국대가 약학대학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의·생명과학분야를 미리 선점해 일류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동국대는 약학대학 유치를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바이오시스템대학 등 단과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동국대는 약학대학만 유치하면 의·생명과학분야를 총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 건립 추진 중인 메디클러스터(의생명과학복합단지)를 위해서도 약학대학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학대학 설립은 정부가 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촉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0월 ‘2011학년도 약학대학 정원배정 신청공고’를 내면서 경기도 권역에 100명 정원을 배정했다. 오는 12월11일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아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유치대학을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에 약학대학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한 대학은 동국대를 비롯해 아주대, 한양대, 한국외대, 가톨릭대 등 10여 개 정도로 알려졌다. 교과부가 배정한 정원이 100명인만큼 2~3개 대학 정도가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경쟁이 치열하다.

동국대는 이미 지난해부터 약학대학 유치를 위한 행보를 착실하게 밟아왔다.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와 공동으로 의생명과학 캠퍼스와 ‘고양 메디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8월에는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인근 부지에 메디클러스터 조성 1단계 공정인 일산캠퍼스 건립을 시작했다. 이에 앞선 7월에는 천문우 전 서울대 약학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약대추진위원단을 발족하고 유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립암센터 등 지역 의료기관과 협약을 완료하고 보건소, 약사회, 제약기업 등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도 동국대의 약대 유치에 발벗고 나서 주목된다. 지난 17일 고양시청에서 ‘동국대 약학대학 유치지원단’ 발족식이 개최됐다. 유치지원단에는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경기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약사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 지역사회 주요 인사가 총망라돼 있다. 유치지원단은 지역사회의 유치 의지를 담은 공문을 교과부에 전달하기도 결의했다.

지난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에 실패한 동국대가 숙원사업인 약학대학 유치에 성공해 일류대학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 “세계 문화유산 연구 중심기관으로”

### 문화재硏, 17일 ‘개소 40주년’ 기념식
### 우즈벡 학술원과 학술교류협정 체결도

올해로 개소 40주년을 맞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는 지난 17일 기념행사를 가졌다.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문화재청장, 전·현직연구소장과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1969년 문화재관리국 내 문화재연구실로 발족한 이래, 고고·미술·건축·무형·자연(천연기념물) 문화재 분야와 이의 보존과 복원을 담당하는 부서로 구성된 종합연구기관이다. 문화권별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5개 지방연구소를 두고 각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봉건 소장은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국가 중추적 문화재 연구기관으로서 개소 40주년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과거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유산 연구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연구소는 19일 우즈베키스탄 학술원 예술과학연구소(소장 피다예프 샤르키드잔)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 불교인권위, 19주년 기념식 박원순·최상재 씨 인권상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스님)는 지난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창립 1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제15회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박원순 상임이사는 시민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여한 공로로 선정됐으며, 최상재 위원장은 언론자유수호활동이 높이 평가됐다.

불교인권위원장 진관스님은 “앞으로도 불교 내부의 인권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을 물론 우리 사회의 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태규 기자


동절기 사찰 화재 예방을 위한

# 협 조 문

날씨가 추워지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각 사찰에서 난방 기구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때입니다. 특히, 사찰은 목조건물이 많고 건물내 화재를 키우는 인화물질이 많아 작은 실수나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온이 낮아 소방용수가 얼거나 빙판길로 소방차 접근이 늦어져 초기 대응이 어려워 작은 화재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각 사찰 주지스님 및 종무 소임자들은 동절기 사찰 화재 예방을 위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길 부탁드리오며, 향후 사찰에서 화재 발생 시 그 관리책임에 대하여 엄격하게 종법을 적용할 것 입니다.

**동절기 사찰 화재 예방 수칙**

- 법당내에서 양초,향 등 화재 유발물 사용을 최대한 자제 합시다.
- 법당내 난방기구는 퇴실 시 반드시 전원을 확인 합시다.
- 저녁예불 후 주요 시설에 대한 일일 점검을 생활화 합시다.
- 비상 소화용품(소화기, 소화용수 등)을 일제 점검 합시다.
- 전기누전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 합시다.

불기 2553년 11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덕 문



고원 명정 스님께 듣는

# 수심결 강의

원오사에서는 오는 12월 1일(화)부터 3개월에 걸쳐 고원 명정스님의 수심결 강의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수심결은 목우자수심결(牧牛子修心訣) 또는 보조국사수심결(普照國師修心訣)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지눌스님이 40세 이후 저술한 것으로 추정되며 문장이 간결, 평이하여 참선의 입문서로 널리 읽혀져 오고 있습니다. 수심결의 주 내용은 ‘마음을 닦아 부처를 이루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강의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리겠습니다.

통도사 극락원 분원 원오사 주지 정관 합장

- 개강일자 _ 12월 1일(화) 오후 2시
- 강의기간 _ 12월 1일(화) ~ 2월 23일 (3개월 과정)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강의)
- 강의장소 _ 원오사 강의실
- 문 의 _ 051)542-7949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극락암분원 원 오 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2동 2-38번지(우612-800)



**2010학년도 전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 및 지도자 과정 모집 안내(야간)**

■모집학과 및 인원

| 학 과 | 전 공 | 모집인원 |
|---|---|---|
| 불교 | 불교학 · 선학 | 00명 |
| 불교사회복지 | 사회복지 | |
| 생사의례 | 생사의례 | |
| 차문화콘텐츠 | 다도 · 제다 | |
| 명상심리상담 | 명상심리상담 | |

■지원자격

◆석사과정
·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자 또는 2010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 국내 · 외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
·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지도자과정
· 각 불교 종단의 스님
· 각 신행단체의 임직원 또는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서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자

■전형일정

| 구 분 | 일 자 | 장 소 |
|---|---|---|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9.11.9(월)-27(금) |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
| 전형일 및 장소 | 2009.12.5(토) 10:00~ |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앞 게시판에 공고 |

■특전
·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취득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재적승려, 조계종 종무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불교언론인, 불교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 생사의례전공 석사학위취득자 또는 지도자과정 수료자는 장례지도사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로 문의바랍니다.
TEL 02-2260-3097-8 FAX 02-2260-8627
http://gsbs.dongguk.edu

dongguk UNIVERSITY